

**한국지방세연구원-중국 천진사회과학원
기관방문 및 공동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

2024. 7.

목 차

1. 출장 개요	1
(1) 추진 배경	1
(2) 출장 개요	2
(3) 세부 일정	3
2. 기관 방문 연수	4
(1) 첨단산업원구	4
3. 국제 학술세미나	10
(1) 학술세미나 개최 개요	10
(2) 중국의 세금 체계	11
(3) 학술세미나 발제 요약	15
4. 출장 결과 및 시사점	17

1. 출장 개요

1

추진 배경

- 한국지방세연구원-중국 천진사회과학원 연구 교류 협력 협정(MOU) 체결 (2018.11.22., 천진사회과학원)

협약 주요 내용

- 양국 지방세 비교, 확충 방안 공유 등 발전 방안 교류
- 합리적인 조세 운영방향 논의 및 지방재정 기반 강화 방안 공동연구
- 양국의 지역 경제 강화, 국가 균형발전 등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 상호 방문 및 인적교류, 세미나 및 워크숍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를 통한 지속적인 우호 관계 구축
- 정기적인 학술성과, 연구정보 및 출판물의 교환 등 연구교류 확대
- 기타 연구협력에 대한 제반 활동

- 천진사회과학원의 기관 방문 시 논의된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 및 연구 교류 확대 등 양 국가의 지방세·지방재정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후속 조치임 ※ 성과확산부-184(2023.9.25.) 참조
- 한-중 지방세·지방재정 정책기조와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지방세 및 지방재정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양 기관 주요 교류 현황

- 「동북아 문호도시 학술세미나」 초청 (2019.9.20.)
 - ‘한국과 중국의 지방세제도 비교 및 조세협력방안 모색’ 세션 참여
- 「한중지역협력 및 지방세교류」 회의 개최 (2019.12.6., 지방세연구원)
 - 지방세연구원 기관 방문, 한중 지역협력 및 지방세교류회의 개최
 - ※ 참석자 : (총 6명) 과연처 처장, 동북아 연구소장, 일본연구소 소장 등
- 코로나19 위로문 및 감사문 서신 교류 (2020.03.12.)
- 천진사회과학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기관 방문 (2023.09.21.)
 -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논의 (2024년 상반기 / 천진사회과학원 방문)
 - 지방세·재정 및 지역발전 등 공동 연구과제 수행 추진
 - 학술 및 인적 교류 등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노력 지속 추진 등
 - ※ 참석자 : (총 6명) 원장, 연구처장, 아태연구소장, 역사연구소장, 생태문명연구소 부소장 등

□ 출장 개요

○ 출장 목적

- 지방세·재정 관련 양 국가의 정책 기조와 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 등을 통한 연구 협력 강화
- 천진사회과학원 방문 및 중국 천진시 주요 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해외 우수사례 확인 등

○ 일 정 : 2024년 6월 20일(목) ~ 6월 22일(토) (2박 3일)

○ 장 소 : 중국 천진시 (천진사회과학원 등)

○ 주 최 : 한국지방세연구원, 중국 천진사회과학원

○ 참석자 : 총 6명 (지방재정연구실장, 연구위원 3명, 실무진 2명)

- 오승규 지방재정연구실장, 김필현 선임연구위원, 박상수 선임연구위원, 박혜림 부연구위원, 유원준 주임, 정연희 주임

※ 연구원 내부 사정(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방문 인원 축소(8명 → 6명)

□ 주요 일정

날 짜	구 분	비 고
6/20(목)	천진시 주요 기관 방문	· 중국 천진시청 등 주요 기관 방문
6/21(금)	사전 환담 및 학술세미나	· 첨단산업원구 참관 · 국제 학술세미나 ※ 학술세미나 세부 계획 참조

□ 학술세미나 개최 개요

○ 일 시 : 6월 21일(금) 14:00~17:00

○ 장 소 : 중국 천진사회과학원

○ 주 최 : 한국지방세연구원, 중국 천진사회과학원

○ 대주제 : 한·중 지방세제의 비교와 향후 발전 방향 모색

○ 세부구성 : 학술발제(6개, 지방세연구원 2개, 중국 4개), 토론(2명)

○ 참석자 : 지방재정연구실장, 연구위원 3명 등

3

세부 일정

날짜	요	시간	N	도시(교통)	연수 내용	비 고
6/20	목	07:10	K	Incheon	인천공항(ICN) Terminal 2 집합	
		09:10		KE805 2h	인천공항(ICN) Terminal 2 출발	
		10:10	C	Tianjin	톈진공항(Binhai Internationl) 도착	
		11:10		미니 버스	톈진공항(Binhai Internationl) 출발	
		12:00			공항 → 수정궁호텔	40분 소요
		13:30			오찬 (천진사회과학원 3명 동행) 숙소 체크인 및 개인 정비	
		14:00		방문연수	오대도, 의식풍정가 참관 천진사회과학원 주관 간담회 참여 등	의식풍정가 등
		18:00			환영 만찬 ※ 천진사회과학원 5명 동행	
		20:00			숙소 이동	
6/21	금	~9:00			조찬 및 개인 정비	
		9:00		방문연수	첨단산업원구 참관 (천진시정부, 톈진대학, 남개대학 공동 추진)	첨단산업원구
		12:00			오찬 ※ 천진사회과학원 4명 동행	
		13:00		학술세미나	천진사회과학원 이동 및 사전간담회	천진사회과학원
		14:00		학술세미나	한-중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	천진사회과학원
		18:00			환송 연회 ※ 천진사회과학원 6명 동행	
		20:00			숙소 이동	
6/22	토	~8:30			조찬 및 체크아웃, 이동	
		09:20		미니 버스	톈진공항(Binhai Internationl) 도착	
		11:35		KE806 2h	톈진공항(Binhai Internationl) 출발	
		14:25	K	Incheon	인천공항(ICN) Terminal 2 도착	

2. 기관 방문 연수

1

첨단산업원구

□ 중국 미래산업 육성 정책 주요 내용

- 중국은 미래 신기술 분야의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면 미국과의 산업 혁신 주도권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뉴로모픽 컴퓨팅, 양자정보, 첨단 바이오 등 미래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디지털, 바이오, 에너지 등 분야의 신기술이 글로벌 산업 전반의 대전환을 주도하고 있어, 주요국은 수년 전부터 국가전략 차원에서 미래 유망 기술을 선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2024년 1월 처음으로 미래산업의 발전 목표와 분야를 규정한 ‘미래산업 혁신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하였으며, 2027년까지 첨단기술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특별기금 마련 등을 통해 정부 주도로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
 - 중국은 성장잠재력이 높고 사용화 초기 단계에 있는 제조, 정보통신, 소재,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기술혁신, 대표 제품 개발, 기업 육성, 표준 구축 및 사업화 등을 추진하고자 함
 - 또한 각종 산업기금을 기반으로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별로도 별도의 특별기금을 설립하여 중장기 투자를 유도할 전망이다
- 주요 지방정부는 지역별 경쟁우위에 기반하여 미래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중국 내 혁신자원이 집중된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지역 조성, 기술사업화에 대한 투자 확대,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2024년 26개의 지방정부에서 금년도 중점정책과제로 미래산업 육성을 제시하였으며, 그중 베이징, 상하이, 선전, 천진 등 12개 지역에서는 별도의 미래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함

- 상하이, 선전시 등은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선도 시범지역을 조성하였으며, 주요 지역별로 기술사업 평가센터 혹은 미래 분야별 응용 실험실 등을 통해 사업성과 시장성이 높은 미래 신기술을 선별하여 투자함
- 중국은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강화를 본격화하고 기술 R&D 및 산업 표준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해나갈 전망으로 향후 신규 창출 시장에서 중국의 지배력 확장에 대비해야 함
- 중국은 2024년 내 핵심 기술·산업별로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최소 5년 이후를 미래산업의 상용화 시점으로 보고 집중투자를 이어 나갈 전망이다
- 또한 중국정부는 첨단기술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조세 제도의 개선 및 지방정부 특별기금설립 등을 통해 정부 주도의 미래 산업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
- 이와 함께 각 지방정부별로 미래산업 특별기금 설립을 장려하고,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있음
- 선전시는 ‘20+8’ 산업기금을 조성하여 전략적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2022년 중점투자 분야로 합성 생물학, 스마트 센서, 신에너지차, 바이오 의료를 선정하고, 2023년 2기 기금을 조성하면서 신소재, 첨단장비, 뇌과학 등을 중점투자 분야로 선정함
- 장시성은 50억 위안 규모의 미래산업 발전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정보통신 및 에너지, 제조 등의 미래 산업에 중장기 투자를 진행할 예정임
- 장쑤성 우시 시정부는 1억 위안 규모의 특별기금을 조성하였고, 추후 3세대 반도체, 차세대 ESS 등 성장형 미래산업과 양자기술 등 분야를 지원하는 10억 위안 규모의 기금도 추가 설립할 예정임

□ 주요 지역의 추진 사례

- 중국의 주요 지방정부는 지역별 경쟁우위를 기반으로 미래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혁신 자원이 집중된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미래 유망기술 R&D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음

- 2024년 지방양회에서 발표된 26개 지역의 ‘정부업무보고’에는 미래 산업 육성이 금년도 중점으로 제시되었으며, 그중 베이징, 상하이, 선전, 천진 등 12개 지역에서는 이미 별도의 미래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함
 - 베이징은 2023년 9월 발표한 ‘미래산업 혁신발전 실시방안’에서 2035년까지의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ICT와 바이오 산업 등 6대 분야에 대한 지역 내 거점을 구축할 계획임
 - 상하이는 2022년 9월 발표한 ‘미래산업 클러스터 행동방안’에서 2035년까지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5대 미래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18개 핵심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할 방침임
- 미래산업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고자 각 지역은 △생태계 조성, △기술사업화 지원, △산학연 협력 추진, △지역 내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시범지역 운영] 상하이시, 선전시, 저장성 등은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의 시범지역인 선도구를 조성하였으며,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분야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자 팀에 대해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함
 - [기술사업화 지원] 주요 지역별로 산업화가 가능한 혁신기술을 선정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기술사업평가센터 혹은 미래 분야별 응용 실험실 등을 통해서 사업성과 시장성이 높은 미래 신기술에 투자함
 - [산학연 협력 추진] 상하이시는 첨단 핵에너지, 합성 바이오 등 분야에 산업혁신연합을 조직하고, 장쑤성 역시 혁신을 이끄는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미래산업혁신연합을 결성함
 - 또한 정부 주도로 미래산업 투자 전문가위원회를 조직하고, 산학연 협동조직에 대한지원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함
 - [지역별 협력 강조] 베이징 등은 지역 내 중복 투자 등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경쟁우위가 있는 지역에 혁신자원 개발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선진시는 신소재, 스마트 제조를 중심으로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산-학-연-지자체 연계 인큐베이터 국유기업 TusStar 방문

주요 내용

◇ 천진시정부-톈진대학-남개대학 공동 추진

- 한국의 **산학협력단** 개념
- 대학의 **연구성과를 산업화**하도록 지원
- 인재채용, 법률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 창구내 업무처리
- 기업소득세와 임대료 감면 정책 관련 청문회 완료

◇ TusStar 국유기업

- 대학의 R&D 연구성과를 산업화하는 관련 서비스 제공
- 투자와 인큐베이팅의 결합 ※ 30,000여 개 인큐베이팅 서비스 중 90여 개 상장회사로 발전
- 전 세계 200여개 인큐베이팅 센터 운영 (15개 해외 포함)

◇ 4개 핵심 분야

-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
- 북경과 하북성, 글로벌 네트워킹
- 연구성과 인큐베이팅 (45개 스타트업기업 유치)
- 대학생 창업 교육실시

- 중국의 TusStar 인큐베이터는 1999년 설립된 칭화 창업원에서 출발하여 칭화 대학교 과학기술원의 기업 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하였음. 2022년에는 중국 과학기술부로부터 국가급 인큐베이터로 인정받았으며, ‘인큐베이터+투자’ 모델을 성공적으로 탐구하고 발전시킴
- TusStar은 ‘인큐베이션 서비스 + 엔젤투자 + 창업교육 + 개방형 플랫폼’을 통합한 ‘사위일체’ 운영 체계를 통해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다양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미래산업 기술의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TusStar 인큐베이터”, “TusStar Venture Capital” 및 “TusStar One Plan”의 신생 기업 사업 지원 체계 구축하여 투자 및 컨설팅을 통해 활발한 혁신과 창업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개방적이고 활동적인 네트워크 인큐베이션 플랫폼 : 정부, 산업 리더, 주요 대학, 연구기관, 금융 기관, 서비스 기관, 미디어 등을 포함한 풍부한 혁신생태계 구축하여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 금융, 무역 및 산업을 통합하는 지원시스템을 체계화함.
- 산업 수직적 가속 프로그램 : TusStar은 Honeywell, Schneider, bp, AWS, 화웨이 등과 같은 업계 리더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수직적 산업 가속화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 TusStar 벤처 캐피털

- TusIncubator은 1999년 구축된 ‘인큐베이션+투자’ 모델을 바탕으로, 자체 자금으로 창업기업에 순차적으로 투자해 왔으며, 중국 온라인, GigaDevice 등 다수의 투자기업이 성공적으로 상장회사로 발전함
- 2014년, 초기 단계의 하드 기술에 초점을 맞춘 투자 관리 플랫폼으로 TusStar Venture Capital을 설립하였으며, 지금까지 TusStar Venture Capital은 자체 직접투자, 펀드운용, 투자 및 지분 참여 등을 통해 초기 하드기술 분야에서 다산업, 다지역, 다펀드 사업을 달성하고 관리를 위탁받아 왔음. 총 13개 기술 벤처 캐피털 프로젝트, 20개 이상의 펀드에 참여, 누적 관리 자본 20억 위안을 달성함
- TusStar Venture Capital은 차세대 정보 기술, 고급 장비, 생물 의학, 신에너지 및 신소재, 기업 서비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

○ TusStar 원 플랜

- TusStar One Plan은 Tusincubator가 출시한 소액 투자 계획으로 공익 상품을 육성하는 스타트업 그룹을 선택하여 소액 자산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음



3. 국제 학술세미나

1 | 학술세미나 개최 개요

- 일 시 : 6월 21일(금) 14:00~17:00
- 장 소 : 중국 천진사회과학원
- 주 최 : 한국지방세연구원, 중국 천진사회과학원
- 대주제 : 한·중 지방세제의 비교와 향후 발전 방향 모색
- 세부구성 : 학술발제(6개, 지방세연구원 2개, 중국 4개), 토론(2명)
- 참석자 : 지방재정연구실장, 연구위원 3명 등
- 세부 계획

주요 일정		세부내용
참석 등록 (13:30~14:00)	'30	· 참석 등록 및 VIP 환담
개회식 (14:00~14:20)	'20	· [환영사] : 중국 천진사회과학원 부원장 · [개회사] : 한국지방세연구원
학술 발제		한·중 지방세제의 비교와 향후 발전 방향 모색
학술발제 (14:20~17:20)	'1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1] : 박상수 선임연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의 지방세·재정 체계의 현재” · [발제2] : 김필현 선임연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소멸 대응 한국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 : 신세원 발굴을 중심으로” · [발제3] : 천허동 원장 (중국 천진재경대학교 교수) “새로운 회계 세제 개혁 배경 하에서의 중국 지방세 현황 및 개혁 추세” · [발제4] : 이택광 부원장 (중국 난개대학교 교수) “중국 특색 금융의 이론적 내포 및 실천 혁신” · [발제5] : 왕희지 부소장 (중국 천진사회과학원 생태문명연구소) “중국 녹색 세금 발전 현황 및 미래 전망” · [발제6] : 왕설태 연구원 (중국 천진사회과학원) “현재 중국 재정이 직면한 주요 문제 및 해결 방안”
종합 토론		
토론 (17:10~17:2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 론] : 오승규 지방재정연구실장 (한국지방세연구원) 박해림 부연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 [회의요약] : 왕 쟡 부원장 (중국 천진사회과학원)

○ 주요 내용

주요 내용

◇ 천진사회과학원

- 중국 천진시정부 산하 종합 연구기관 (16개 연구소 / 데이터, 도시경제, 산업 등)
- 전체 인원 250명 중 연구직 160명으로 경제사회문화 분야 천진시 대표 싱크탱크

◇ 중국의 지방세제 및 여건

- 18개 세목 중 7개 세목이 지방세로 운용
 - 중앙의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
 - 자원세와 기업소득세, 영업이익세는 100% 지방의 재원
 - 취득세 3%만 부과, 보유세 및 양도세는 없음
- 고령화·저출산, 경기 여건 불확실
 - 저출산(2022년 중국의 합계출산율 1.09명), 고령화로 인한 지방 여건 악화
 -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지속
 - 재정성과관리, 세수에 대한 확충 논의(환경세 등) 활발

2

중국의 세금 체계

※ “알기 쉬운 중국세법”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2019) 참조

○ 중국의 세법체계는 개혁 개방 이후 세목별로 여러 가지 변화를 거쳐 왔으며, 1994년 세무제도 개혁을 통해 과거 37개의 세목에서 현재와 비슷한 수준인 20여 개의 세목으로 축소되었음. 중국은 과거 중국 기업의 중국인에 대한 대내 세법체계와 외국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대외 세법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으나, 세무제도 개혁 이후 내자와 외자로 구분되어 있던 세법체계를 통일하였음. 특히, 우혜정책과 손금 산업 범위에서 중국기업과 외자기업의 차이가 비교적 큰 기업소득세를 2007년 3월 1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을 통과시키면서, 내자/외자기업소득세 제도를 통일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세법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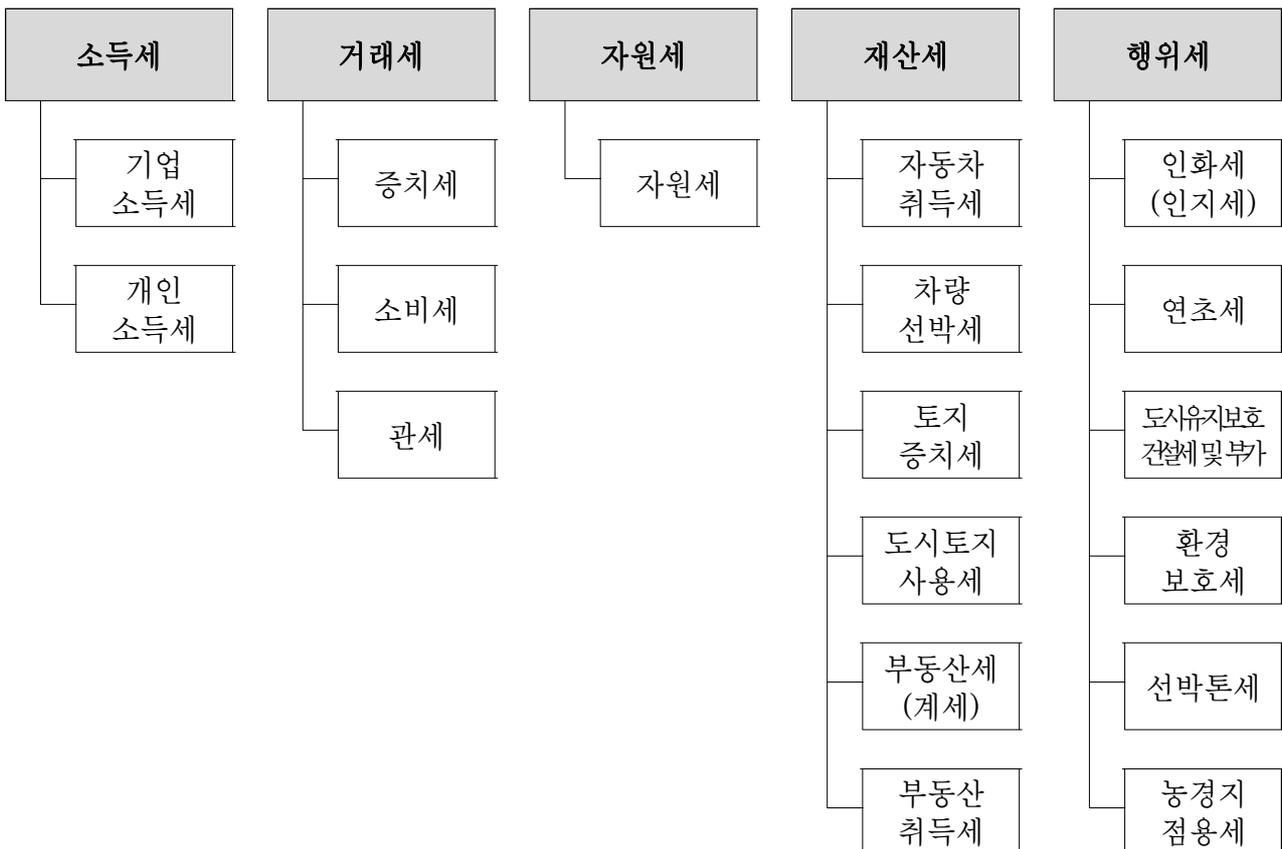
- 현행 세법체계는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체법은 18개의 세목별 구체적인 법률 및 법규로 구성됨
- 그 중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는 국가법률 범주에 속하는 기업소득세법과 개인소득세법에 근거하며 다른 세목들은 국무원이 제정, 발표한 잠행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절차법은 세금징수관리 법률 제도로써 세무 기관 책임 징수인 징수 관리법과 해관 책임 징수인 해관법, 해관실시조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중국 현행 세법 체계 〉

분류	입법기관	형식	예시
세수 법률	전국 인민대표회의 및 상무위원회 정식 입법	법률	기업소득세법, 개인소득세법, 세수징수 관리법, 선박세법
	전국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위임 입법	잠행조례	증치세 잠행조례, 소비세 잠행조례, 토지증치세 잠행조례, 자원세 잠행조례
세수 법규	공무원(세수 행정법규)	조례, 잠행조례, 실시세칙	세수 징수관리법 실시세칙, 방산세 잠행조례
세수 규장	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세수 부문규장)	방법, 규칙, 규정	증치세 잠행조례 실시 세칙, 세수 대리 시행방법 등
	성급 인민정부 (세수 지방 규장)	방법, 규칙, 규정	북경시 방산세 잠행조례 실시세칙 등

〈 과세 대상의 성격에 따른 세목 종류 〉



○ 중국의 세무기관

- 국가세무총국은 내부기관 및 직속기관으로 구분이 되며, 내부 기관은 다시 판공청, 인사사, 내부감사사 등 대내기관과 정책법규사, 소득세사, 국제세수사 등 세목별/기능별 대외기관으로 구분됨
- 성급, 시급 세무국도 유사한 기능기관들을 설치하나 내부구조상 성급 기관은 처급, 과급 등 공무원 기관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됨. 또한, 1994년 국세국/지세국 분리 후 25년만인 2018년도에 납세자 편의증대와 징수 관리 강화를 위해 성급과 성급이하 국세국과 지세국이 합병됨

○ 주요 세목 소개

① 증치세

-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증가 가치(즉 부가가치, 마진)에 부과하는 조세
- 중국 증치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증치세는 중국 경내에서 재화를 판매하거나, 가공, 수리수선 용역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무형자산을 양도,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화물을 수입하는 단위나 개인을 납세인으로 하여 증치액과 화물 수입금액을 대상으로 과세함
- 증치세는 가치증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매출액을 과세기준으로 하며, 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 관리하며 가격 외 세금으로, 세금 금액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특징이 있음
- 증치세 적용 세율에는 법정 기본세율은 13%, 9%, 6% 등이 있으며, 그 외의 적용율은 징수율로 별도 지칭함

② 기업소득세

- 기업소득세법은 한국의 법인세와 동일한 세수항목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기업과 기타소득을 취득하는 기업은 기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기업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함. 다만, 개인기업 및 파트너쉽 형태의 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소득세법이 적용되지 않음
- 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수입총액에서 비과세수입, 면세수입, 각종 공제항목 및 적용가능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과세소득액으로 함

③ 개인소득세

- 중국의 개인소득세는 급여 및 임금, 개인공사업자의 생산·경영소득 등 자연인이 얻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2018년 연말까지 총 일곱법의 개혁을 진행하였으며, 종전 소득별 분류과세체계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형태인 일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이외의 소득에 대한 분류과세의 복합적인 형태의 정책을 실행함

< 중국 세목의 한국과의 비교 >

	중국 세금 종류	과세 대상	한국 유사 세금·공과금
1	증치세	재화,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의 판매 또는 수입	부가가치세
2	소비세	술, 담배, 차량, 귀금속, 정제유 등 판매 또는 수입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3	기업소득세	기업에 발생한 소득	법인세
4	개인소득세	개인에 발생한 소득	소득세
5	자원세	광산 등에서 자원 채굴 또는 소금 생산	지역자원시설세
6	성시유호건설세	증치세와 소비세 납부액에 부과	-
7	방산세	보유하는 건축물	재산세(건축물)
8	인화세	매매, 차입 등 계약서와 허가증서	인지세, 증권거래세
9	성진토지사용세	실제로 점용하고 있는 토지	재산세(토지분)
10	토지증치세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양도소득세
11	차량선박세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나 선박	자동차세, 재산세(선박분)
12	차량취득세	차량이나 오토바이 취득	취득세(차량)
13	담배잎세	수매하는 담배잎	담배소비세
14	경지점용세	농경지에 건축물을 건설	재산세(토지분)
15	계세	건물이나 토지사용권 취득	취득세(부동산)
16	환경보호세	오수나 폐기물 등 배출	배출부과금
17	관세	수입 또는 수출하는 화물이나 물품	관세
18	선박톤세	경외에서 경내 항구로 진입하는 선박	

파이낸셜뉴스 “[알쏭달쏭 중국 세법] 한국과 비교하며 이해하는 18개 중국 세목” (2021.6.21.) 참조, 중국 세금 종류와 한국 세금 비교 (주중 한국대사관 제공)

□ [발제 3] “새로운 재세제도 개혁 배경 하 중국 지방세 현황 및 개혁 추세”

- 천취둥 교수 (톈진재경대학 재세와 공공관리대학)

2023년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금융체제 개혁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고 고품질발전에 대한 재세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을 명시하였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재세체제를 4단계에 걸쳐 개혁을 추진하였다. 2023년 중앙과 지방예산 초안 보고서에 따르면 재세개혁을 통해 지방세 체계를 건전성 확보를 특별히 명시하였다. 개혁 전후 지방세 세수 구조에서 영업세와 국내증치세를 개혁 후 국내 증치세로 전환하여 전반 지방세 세수 구조에서 국내증치세 부분이 31.92%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개혁의 추세는 그 체계를 보다 보완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지방세 주체 세목에 대해 규정함으로 충족한 세원을 보장하고 효율과 공평을 추구하며 재정사무권, 지출책임을 기반으로 재정균형을 확보하는 데 있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관계를 조절하여 소득세와 재산세를 주체로 하는 직접세 체계를 추진함으로 종합과 분류가 결합된 개인소득세제도를 진일보 보완하고 현행하는 부동산세, 성진토지사용세, 계약세를 신부동산세로 합병하며 교육비부가가치세와 지방교육비부가가치세를 합병하여 교육세와 사회보험금을 사회보장세로 개혁한다.

□ [발제 4] “중국 특색 금융의 길 이론의 의미와 실천적 혁신”

- 리저광 교수 (난카이대학교 금융대학)

중국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후 40여 년간의 발전을 거쳐 노동력, 자본과 기술 요소가 성장하면서 금융 요소와 과학기술 혁신으로 인한 전반 요소 생산율이 주요 동력으로 부상하였고 시장화 수단을 통해 자금 배치와 저효율 문제를 완화하고 제도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추진하기 위해 고품질 발전 목표에 부응하는 금융발전 개혁과 조절이 시급하다. 중국 중앙정부에서도 금융은 국가의 핵심경쟁력이고 금융안전은 국가 안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금융제도는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적 제도임을 중시하고 있다. 금융체제 개혁은 다원화된 금융조직체계, 날로

방대해지는 금융시장체계, 시장화가 선도하는 자금정가체계, 효율과 안정을 겸비한 거시적 금융관리체계 점차적으로 개방적이며 균형적인 대외금융체계, 신속하고 완벽한 금융인프라 체계로 발전하였다.

□ [발제 5] “중국 녹색세수 발전 현황과 미래 발전방향”

○ 왕후이즈 부소장 (톈진사회과학원 생태문명연구소)

녹색세수제도는 자원을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 이용하며 녹색생산과 소비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세수제도이다. 경제수단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환경보호 행위, 오염 감소, 자원의 과도한 낭비를 방지하여 인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녹색세수제도에는 주요녹색세목, 기타 녹색세목, 녹색세수 혜택 등 내용이 포함된다. 주요 녹색세목에는 환경보호세, 기타 녹색세목에는 자원세, 경작지점용세, 차량선박세가 포함되며 녹색세수 혜택에는 기업소득세, 증치세, 소비세, 차량구매세가 포함된다. 녹색세수 제도 실시의 효과는 뚜렷하며 2017년 19815억 위안에서 2023년 26731억 위안으로 성장하여 녹색세수가 전반 세수 중 차지하는 비중도 13%에서 17%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징수범위를 고체폐기물, 방사설오염, 광공해, 이동오염원 등으로 확대하고 석유,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자원에 대해 탄소제를 실시할 전망이며 청정 에너지자원에 한해 감면 혜택을 확대할 것이다.

□ [발제 6] “현재 중국 지방재정이 직면하고 있는 돌출한 문제와 해결방안”

○ 왕쉐타오 연구원 (톈진사회과학원 데이터경제연구소)

지방재정은 지방재정 수지 모순 돌출, 지방정책의 효과 미흡, 지방채 잠재 리스크가 큰 등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그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 수지구조를 최적하고 재정 실적관리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정책을 보완하고 시장주체의 신속한 육성을 가속화 해야 한다. 셋째, 잠재적 채무 리스크를 완화하여 융자플랫폼 시장화 전형을 추진해야 한다.

4. 출장 결과 및 시사점

- 지방세·재정 관련 양 국가의 정책 기조와 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공동 모색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세·재정 제도의 합리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음
- “중국의 녹색 세수 발전 방안” 발제를 통하여 최근 이슈화되는 환경과 관련한 양 국가의 공동 관심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지역자원시설세 및 환경 관련 각종 부담금 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음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최근 지속적인 출산율 및 혼인 건수 감소, 대도시(동남권)의 인구 집중 심화 등으로 인해 지방의 활력이 감소하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최근 중국 정부는 국정목표를 “공동부유를 통한 소득 격차 해소와 지역 간 고른 발전”에 역점을 두어 많은 재원을 지방에 투자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중국 지방정부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음. 다만, 그 이후 지방정부의 채무가 급증하는 등 엄격한 재정관리·감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플랫폼을 정비하고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수 공유 방식, 지역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지속적인 교류로 이해와 공유의 폭을 넓힐 필요성이 있음

○ 중국 천진사회과학원과의 지속적인 연구 협력 방안 모색

- 공동 국제 학술행사 개최 정례화(상호 방문)
- 국내외 유관기관, 학계 및 시도연구원(인천연구원) 등과의 공동 학술행사 개최로 주제의 다각화 모색
- 천진사회과학원의 개별 연구소(16개)와의 연구 교류 다각화 추진

공동 연구과제 주제(안)

- ◇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확대 및 재정성과 관리
- ◇ 금융규제와 금융플랫폼의 육성정책
- ◇ 보편적 지방세와 각 지역 고유의(특유의) 지방세
- ◇ 환경 관련 규제: 환경세(부담금), 탄소세, 환경친화적 소비에 대한 세제 혜택 등
- ◇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재정정책

<사진 1> 첨단산업원구 TusStar 방문사진



<사진 2> 첨단산업원구 방문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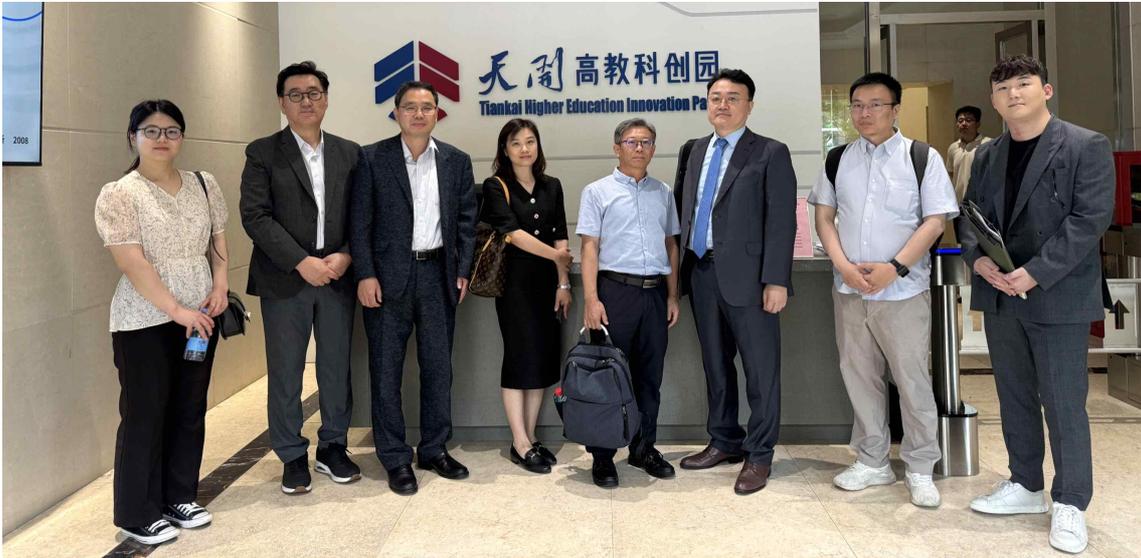
<사진 3> 천진사회과학원 국제 학술세미나 사전 간담회



<사진 4>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사진



<사진 5> 첨단산업원구 방문사진



<사진 6>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 사진

